

# 국민건강 위한 낙농육우산업 회생 바라며



**권영웅**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부장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한-미·한-EU FTA 체결에 따른 값싼 외국산 유제품 수입급증, 원유과잉생산 및 소비 감소에 따른 잉여원유발생,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영세한 낙농육우농가 부담가중, 지속적인 사료값 인상과 젓소와 육우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세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으며, 또한 국민에게 신선한 유제품과 고기를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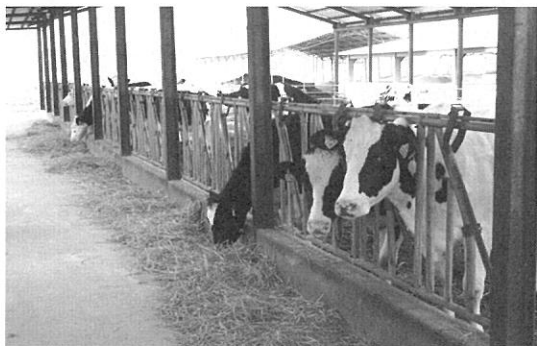
이에 우리 농협중앙회는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자들에게 우리 낙농육우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증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전국에 분포한 축협 및 낙농조합을 중심으로 집유과정을 일원화 함으로써 물류비 절약 및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정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가공업체 등 수요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전국쿼터제 도입을 통해 생산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

“집유과정을 일원화함으로써 물류비 절약 및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피해보전 직불제는 낙농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하락이 아닌 생산량 감소를 산출기준으로 삼는 현실화가 절실하며, 폐업지원금 산출방식도 이와 연계하여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산 유제



품 시장 형성을 위하여 가공유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우 송아지 시장은 한우사육두수 증가, 쇠고기 수입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의 안정성이 낮으며, 젓소 수송아지의 경우 육우가격 폭락시에는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우송아지 매입이 중단될 경우 송아지 불법 도살 및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 유통량의 12%에 해당하는 육우시장을 수입육이 잠식할 우려가 크다. 이에 현재 한우 암소 사육농가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육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유제품 및 육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

구제역 이후 각종 증산정책으로 최근 원유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유소비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잉여원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한우가격 하락으로 육우가격도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심지어 육우송아지 가격이 1만원 이하로 거래되는 등 낙농육우산업의 생산기반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부문에서는 현재 저소득층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우유 무상급식을 전체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과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 우유의 신선도를 높일 수 있는 냉장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250ml로 제공되고 있는 군장병 급식용량을 300ml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에게도 우유급식을 실시하여 우유소비를 확대하도록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육우부문에서는 육우가격 지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육우고기 군납용량을 현행(9g/1인)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며, 우리 육우고기의 우

수성 홍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타 제언

낙농육우산업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사료비 비중이 높아, 사료가격의 상승은 목장경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료를 국내에서 자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곡물과동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낙농육우농가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휴경논,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포를 조성하고, 그 생산면적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계 낙농인이 감소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낙농후계자가 상속을 받을 때 기업상속공제를 허용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낙농업을 발전시켜 나아가갈 후계낙농인을 확대할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우리 낙농육우산업에는 낙농단지 조성 지원 및 육성우 목장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을 통한 민원발생 감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통한 기존 축산농가 정비 및 회생기회 부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 마무리하며

축산업 그 중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신선한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는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우리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선진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외국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허용하며 우리 축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인간의 의식주 중 식(食)을 책임지는 우리 낙농육우산업의 위축이 우리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아무쪼록 18대 대선주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국민건강의 밑거름이 되는, 낙농육우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신선한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는 필수 산업이다”